

평화의 작은이들



새속 프란치스코 토론토 성 요한 비안네 형제회 Secular Franciscan Order St. John Vianney Fraternity of Toronto

연락처: 22 Royal Palm Dr, Thornhill, ON L4J 5R3
Tel: 905-889-6518 E-Mail: sunlee333@hotmail.com
월례회; 매월 마지막 토요일 오전 10:00 시

제 43 호

2 월 형제회 소식

2009 년 2 월 28 일

오늘 월례회 순서

- 오전 9 시 - 미사
- 오전 10 시 - 리따 수녀님 영성 강의
- 오전 11 시 40 분 - 월례회
- 오후 12 시 - 친교

형제회 소식

- 다음 달 월례회는 3 월 28 일(토), 예수성심 성당에서 오전 11 시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차편이 없으신 회원은 오전 10 시까지 한맘 성당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 다음 달 평의회는 확대 평의회로서 3 월 20 일(금) 오후 6 시, 구미식당에서 각 구역장들과 함께 구역모임 운영과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입니다.
- 새로 편성된 각 구역 모임의 구역장과 서기가 확정되었습니다. 잔 꽃송이-강정숙,이용란/ 야고바-장수자,최옥경/ 성녀 글라라-정진숙, 송혜경/ 종달새-신현수,(서기 미확정)/ 레오-이규일, 홍현주
- 박종국 요한 형제님이 지난 2/14, 향군 캐나다 동부지회의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프란치스코 정신으로 사회에도 이바지하시도록 격려와 축하를 부탁드립니다.
- 사회봉사모임에서 월 1 회 정도 정기적으로 봉사를 원하시는 회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희망하시는 회원은 권경수 자매님께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부탁 드립니다

- 지난 2/10, 권효웅 형제님, 권경수 자매님께서 외손자를 보셨습니다. 축하해주시고 아기가 주

님의 은총 안에서 건강하고 총명하게 잘 자라도록...

- 2/21, 입회반 김연재(아그네스) 자매님의 따님(Angie Kim)이 혼인하였습니다. 축하해주시고 새 가정에 주님의 은총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 병환 중이나 역경에 처한 회원들을 위하여...

사부님 영성의 향기 (9)

‘바보가 그리운 시대’

봉사자 이선영 하상 바오로 ofs

어느 현인이 말한다: “그가 한 일은 최후 순간에 판가름 나느니라.” 우리는 이 말이 이 성인에게서 그대로 영광스럽게 이루어졌음을 본다. 기쁜 마음으로 하느님의 계명 길을 달리며, 그는 모든 덕을 차근차근 밟아서 정상에 올랐다. (2 켈라노 214)

지난 2 월 16 일, 가톨릭계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의 큰 어른이었던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님께서 향년 87 세로 “고맙습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는 마지막 메시지를 남기고 선종하셨으며 장례기간 사흘 사이 40 만의 조문객이 서울 명동성당을 다녀갔고 교황장으로 치뤄진 장례식은 국장에 버금가는 인파가 자신을 ‘바보’라고 말한 추기경님의 선종을 애도하였다는 소식을 신문 기사를 통해서 읽었습니다.

김수환 추기경님이 2007 년 10 월, 당신이 그린 자화상에 제목을 ‘바보야’ 라고 붙이고 “인간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겠나. 내가 제일 바보스럽게 살았는데

지도 몰라요”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추기경님은 평생을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편에서 정의를 실천하는데 앞장을 서시고 그러면서도 마지막 순간까지 미소와 인간미를 잃지 않으시고 마음이 따뜻한 ‘이웃집 아저씨’ ‘혜화동 할아버지’로 불리며 소년처럼 천진한 ‘바보’ 같은 삶을 살았던 분이셨습니다.

추기경님의 삶을 반추해보면 당신이 생전에 가장 존경한 프란치스코 성인의 삶과 너무나 많이 닮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남긴 재산이라고는 통장 잔고가 1000 만원도 훨씬 안 되는데 선물로 산 묵주 등의 값을 지불하고 나면 모자랄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당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안 쓰시고 사목표어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같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하여 사용하신 것이지요. 평생, 가난을 실천하며 사셨으면서도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던 2007 년 여름의 평화방송 인터뷰에서 더 가난하게 살지 못한 것이 가장 후회스럽다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바보는 ‘예수님’이라고 어느 신부님이 말씀하셨는데 제 2 의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사부님의 제자인 우리 프란치스코를 역시 큰 바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국 일각에서는 벌써 학자들이 “고인 바보정신 확산 사회운동”을 기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시대 평화의 대안은 우리 프란치스코들이 아닌가?” 감히 말 해봅니다.

회계 보고

2009 년 1 월 31 일 현재

내역	전월 이월금	월 수입금	월 지출금	현 잔고
회비	6,785.50	2,050.00	2,564.63	6,270.87
선교 후원금	6,915.43	340.00	0.00	7,255.43
도서 구입	1,747.15	580.00	217.68	2,109.47

오늘도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은?

강희백 도미니꼬 ofs

“그리스도 예수는 하느님과 본질이 같은 분이셨지만 굳이 하느님과 동등한 존재가 되려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의 것을 다 내어 놓고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 우리와 똑같이 인간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셔서 죽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필리피 2,6-8)

예수님은 그 존엄하신 하느님의 육체가 발가 벗겨지고 칼날 같은 가시관을 머리에 쓰신 채 희생 재물이 되시어 죄의 늪에 빠져있는 처참한 인간 구원의 길은 바로 십자가의 길임을 침묵으로 말씀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박해의 선봉을 달리고 있는 바오로(당시 사울) 에게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에서 빛으로 나타나시어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하시며 ‘사도의 길’을 걷게 하셨다 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반쯤 허물어진 ‘산 다미아노’ 성당 십자가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 하는 우리의 사부 프란치스코에게

“프란치스코야! 가서 저 허물어 저가는 나의 집을 수리하여라” 라고 하시며 주님의 종이 되게 하셨다 면...

오늘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치는 소리와 함께 피를 흘리시면서도 사도 바오로와 당신의 종 프란치스코에게 분부하신 말씀을 끝없이 하고 계시리라 믿는다.

사순 시기를 맞이한 우리 모두에게도 회개와 단식으로 더욱 마음과 정신이 새로워져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갈구하고, 나 자신 또한 예수님 십자가의 계시와 고통을 신앙 안에 정성스레 모시고 기도와 묵상 그리고 혈벗고 굶주린 이웃을 찾아 나서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수 있기를 간구해 본다.